

## 장치로서의 (임)모빌리티와 그 재현 —『모빌리티와 푸코』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연구 시론

김나현\*

1. 푸코와 모빌리티
2. 임모빌리티의 모빌리티와 재현
  - 2-1. 임모빌리티의 모빌리티
  - 2-2. <1F/B1>, 관리인의 모빌리티
3. 장치로서의 모빌리티와 재현
  - 3-1. 장치로서의 모빌리티
  - 3-2. 주저하는 (임)모빌리티
4. 결어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모빌리티와 푸코』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 책은 푸코의 주요 개념을 모빌리티 연구에 적용한 논문 7편을 담고 있어 양쪽 연구 모두에 지적 자극을 주고 있다.

푸코는 이성/비이성, 정상/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술을 통해 작동한 규율 권력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감옥으로 대표되는 폐쇄적 공간에 대한 연구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모빌리티와 푸코』의 필자들은 푸코의 작업에 이미 모빌리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들어있었음에 주목하며 이를 모빌리티 연구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킨다. 푸코가 말한 통치성이자 장치로서의 모빌리티에 주목했을 때, 모

---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강사

빌리티와 임모빌리티 사이의 긴장감과 역동성이 강조되어 단순한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모빌리티 연구의 가능성이 열린다. 본고는 이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해 김종혁의 소설 〈1F/B1〉과 김혜진의 단편소설을 분석한다. 〈1F/B1〉은 건물 안에 흡사 갇혀있는 듯 보이는 건물관리인의 서사를 담고 있지만, 소설 속 관리인의 모빌리티는 기성의 통념을 관통하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로 나아가며, 김혜진의 단편소설 〈목화맨션〉, 〈치킨 런〉, 〈줄넘기〉 등은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빌리티의 재현을 통해 주체를 구성하는 장치로서의 모빌리티를 보여준다. 『모빌리티와 푸코』의 연구를 참조했을 때 우리는 텍스트 속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서사를 재독하게 된다.

이 연구는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를 새롭게 확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간 모빌리티 연구를 적용한 텍스트 분석은 대개 여행기나 표류기, 디아스포라 서사 등 명백하게 이동하는 서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모빌리티와 푸코』는 권력과 모빌리티의 관계,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역동성 등에 주목하게 하여 새로운 텍스트 연구를 추동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서사 속 모빌리티 재현에 주목했을 때 드러나는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를 확인하고,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의 확장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모빌리티, 임모빌리티, 미셸 푸코, 통치성, 장치, 김종혁, 〈1F/B1〉, 김혜진, 모빌리티의 재현)

## 1. 푸코와 모빌리티

이 글의 목적은 미셸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연구와 최근의

모빌리티 연구 사이의 접점에서 새로운 대중서사 연구 방법을 모색해보는 데에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비판이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푸코의 작업은 문학에서부터 역사학, 사회과학 등 인문·사회학 전방위를 아우르지만, 그중에서도 광기와 이성이 분리되는 과정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보여주는 『광기의 역사』<sup>1)</sup>나 한 사회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격리와 배제의 방식을 추적하는 『감시와 처벌』<sup>2)</sup> 등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에 (물리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장치에 대한 푸코 특유의 지적 관심이다.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명료해지는 통치성 연구에서 푸코는 근대 규율 권력의 생명정치로의 이행에 주목하는데,<sup>3)</sup> 이때에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모빌리티가 아닌 임모빌리티, 즉 부동성이다.

반면에 모빌리티 연구는 모든 것은 이동 중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모빌리티 이론가 존 어리의 『모빌리티』 첫 문장이 “마치 온 세상이 이동 중인 것처럼 보인다”<sup>4)</sup>로 시작하는 것은 고도의 상징인 한편 지극히 일상적인 사실이다. 사람과 물자 및 자본, 문화와 테크놀로지, 지식과 권력을 비롯한 모든 것의 모빌리티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는 동시에 일상화되고 있어서, 이제 모빌리티는 ‘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었고 모빌리티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우리 모두의 중요한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모빌리티에 수반되는 기술적이고 환경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인문학적이기도 한 여러 문제들은 지

1)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옮김, 나남출판, 2020.

2)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 2020.

3)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토르망 옮김, 난장, 2011;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토르망 옮김, 난장, 2012.

4) 존 어리, 『모빌리티』, 강현수·이희상 옮김, 아카넷, 2014, 23쪽.

금 이 시각에도 가장 뜨거운 글로벌 쟁점이다. 따라서 모빌리티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모빌리티 경관과 푸코적인 파놉티콘의 시각장은 자칫 상반된 지적 여정을 보여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연구 경향이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한 연구자들이 있다. 루체른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카타리나 만더샤이트(Katharina Manderscheid), 옥스퍼드대학 지리환경학부 교수 팀 슈바넨(Tim Schwanen), 랭커스터대학 모빌리티연구소의 데이비드 타이필드(David Tyfield)가 펴낸 『모빌리티와 푸코』<sup>5)</sup>가 바로 이 연구의 결실이다. 이 책은 2013년 루체른대학에서 열렸던 ‘모빌리티와 푸코’ 워크숍의 결과물이 모인 2014년 『모빌리티(Mobilities)』지의 특별호를 엮은 책으로, 푸코적인 접근과 모빌리티 연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7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푸코적인 연구 방법이 모빌리티를 개념화하는 데에 상당한 지적 자극을 준다는 점이다.

요컨대 오늘날 모든 것이 이동하고 있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면, 이 모빌리티의 수행에 관여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고 조직되는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지식-권력에 대한 푸코의 통찰은 모빌리티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모빌리티를 결정하고 분류하고 배치하는 기술은 특정한 지식, 그리고 특정한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모빌리티는 효과적인 규율 권력인 동시에 자기 통치 기술이기도 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차원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물리적 거리 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몸짓과 자세 등 이동의 문제와는 다소 무관해보는 모든 움직임(의 정지)도

---

5) Katharina Manderscheid, Tim Schwanen & David Tyfield (eds.), *Mobility and Foucault*, New York; Routledge, 2015. (이후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 내 쪽수만 표기.)

푸코적인 의미의 권력 문제를 경유한 모빌리티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빌리티와 푸코』의 저자들은 모두 푸코를 경유하면서 오늘날 모빌리티의 문제를 사유한다. 크리스 필로(Chris Philo)는 푸코의 텍스트를 재독하면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를 포함하여 그의 여러 작업 속에 모빌리티에 대한 사유가 이미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밝혀내는 데에 주력한다. 특히 푸코의 저작 안에 드러난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임모빌리티가 ‘공적’ 모빌리티를 훈련시키고 관리하기 위해 동원된 것임을 확인한다. 푸코의 논리 안에서 모빌리티-임모빌리티는 이미 권력과 지식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어 나다니엘 오그래디(Nathaniel O’Grady)는 영국의 소방서 부지 결정 과정을 검토하면서 푸코의 ‘환경(milieu)’ 개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푸코가 생명권력과 안전장치를 이야기하면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인구를 관리하는 방식이었고, 그 중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도시의 도로나 수로 같은 ‘환경’이다. 오그래디는 이 개념에 주목하면서 사회적인 모빌리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모빌리티를 부여하는 문제에 적용한다.

세 번째로 크리스토프 민케(Christophe Mincke)와 앤 르몬(Anne Lemmone)의 연구는 푸코적인 의미의 감옥을 다루고 있다. 일찍이 푸코가 감옥을 통해 정상성의 탄생에 주목했던 것처럼, 이들은 벨기에를 비롯한 현대 서구 국가들의 사법제도 안에서 정상성을 둘러싼 감옥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이들은 감옥에 대한 담론에서 죄수는 책임감 있는 모빌리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만 재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푸코의 통치성 연구에 집중한 논문도 있다. 마커셔(Mark Usher)는 푸코가 만들어낸 개념인 통치성에 주목하지만 푸코의 논의를 반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싱가포르의 물에 관한 통치를 분

석하면서 이를 도시 순환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이로써 모빌리티와 생명정치 사이의 긴밀성을 확인한다.

이상의 논문이 모두 푸코에 대한 꼼꼼한 연구에서 출발해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쓰여졌다면, 이어지는 논문들은 현대 도시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매튜 패터슨(Matthew Paterson)은 모빌리티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탄소배출 문제를 다룬다. 끊임없이 확장되는 모빌리티의 산물인 동시에 현재의 정치·경제 질서에 있어 불가분의 요소인 탄소 시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생산되는 장이기도 하다. 특히 패터슨은 ‘저탄소’ 실천을 위한 여러 규범과 주체 중심 거버넌스를 푸코적인 의미에서 해석해낸다. 이어 데이비드 타이필드(David Tyfield)의 연구는 기후변화문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장소인 중국을 다룬다. 푸코의 권력 개념 속에서 중국 내 자동차모빌리티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및 사회 시스템 전환 문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카타리나 만더샤이트는 푸코의 ‘장치’ 개념을 경유해 자동차모빌리티 문제를 사유한다. 특히 오늘날 자동차모빌리티가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결국 『모빌리티와 푸코』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더없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오늘날의 도시 모빌리티를 다루면서도 도시공학적인 기술 혹은 경험적인 사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푸코적인 의미에서의 지식과 권력, 안전과 통치의 문제와 교차시킴으로써 논의의 지평이 확장된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실제 세계 내 모빌리티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모빌리티 실천에 수반되는 사회적 관행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빌리티 재현에 대한 연구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소설과 영화 등 대중

서사에서의 모빌리티 재현 양상을 검토해보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미학적 실천을 검토해보는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모색<sup>6)</sup>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텍스트 분석 연구도 꾸준히 제출되고 있는데, 한국문학 연구에서는 식민지 후반 하신애의 소설을 중심으로 조선인들의 모빌리티 양상을 검토한 하신애의 연구<sup>7)</sup>, 소설 『토지』에 드러난 공간 인식과 재구성 양상을 모빌리티 관점에서 검토한 이승윤의 연구<sup>8)</sup>, 1970~80년대 박태순의 국토기행문 작업과 통치 권력의 국토개발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빌리티 양태를 고찰한 김나현의 연구<sup>9)</sup> 등이 있고, 재일조선인 작가의 디아스포라 서사에 나타난 모빌리티 재현에 대한 검토,<sup>10)</sup> 중국의 3대 여행기 중 하나인 최부의 『표해록』을 모빌리티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sup>11)</sup> 등도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빌리티 재현의 문제를 지식-권력과 통치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해보는 작업은 모빌리티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모빌리티와 푸코』에 수록된 필로, 그리고 민케와 르몽의 논문을 중심으로 푸코적인 방식 안에서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를 김중혁의

- 
- 6) 이진형,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의 모색』, 『대중서사연구』 제24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8.  
 7) 하신애, 『제국의 법역으로서의 대동아와 식민지 조선인의 모빌리티』, 『한국현대문학의 연구』 제57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9.  
 8) 이승윤, 『소설 『토지』에 나타난 모빌리티 연구: 공간의 재인식과 관계의 재구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7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9) 김나현, 『국토라는 로컬리티: 1970~80년대 박태순의 국토기행문』, 『사이間SAL』 제30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10) 양명심, 『일본명 조선인 작가의 디아스포라 서사와 모빌리티 재현』, 『일본어문학』 제79호, 한국일본어문학학회, 2018.  
 11) 정은혜, 『모빌리티 렌즈로 바라본 최부의 『표해록』』, 『인문학연구』 제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단편소설 〈1F/B1 일층, 지하 일층〉의 분석에 적용해보고 푸코적인 틀에서 모빌리티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텍스트 분석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건물관리인이 처한 (임)모빌리티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소설은 임모빌리티와 모빌리티의 교차적 배치를 통해 구성되는 현대 도시성과 권력, 그리고 주체의 문제를 사유하게 하는 흥미로운 우화다. 또한 〈목화맨션〉, 〈치킨 런〉, 〈줄넘기〉 등 김혜진의 단편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주저하는 모빌리티’ 재현을 검토하겠다. 이 소설들은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장치로서의 (임)모빌리티를 잘 보여준다.

## 2. 임모빌리티의 모빌리티와 재현

### 2-1. 임모빌리티의 모빌리티

모빌리티가 정지된 곳이 있다. 혼자, 혹은 허가된 소수의 인원만이 사 용해야 하는 좁은 방 안에서의 생활이 강제된 곳,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 하게 통제된 상태에서의 이동이 허락되는 곳, 바로 감옥이다. ‘비정상적 인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해 18세기 말에 등장한 광인수용소도 마찬가지다. 이 공간 안에서는 수감자들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보호, 교정, 치료라는 다양한 명분 아래 수감자의 모빌리티가 극단적으로 제 한된다. 그래서인지 그간 모빌리티 연구에서는 이처럼 움직임이 정지된 공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간에도 모빌리티는 존재한다. 수 감자들은 제한되고 훈련된 형태 안에서 움직이고 이동한다. 필로의 연 구<sup>2)</sup>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

됐던 임모빌리티 공간 안에서 모빌리티가 어떻게 조직되고 배치되는지에, 다시 말해 “임모빌리티 안에서의 모빌리티라는 이상한 현상”(16)에 주목하는 것이다.

모빌리티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하는 때는 사실 모빌리티가 정지된 순간, 임모빌리티의 순간이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교도소의 공간 배치는 더 이상 확장되거나 개방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고정성 그 자체이며, 이 안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들은 말 그대로 수감된 상태이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섯해진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도 움직임이 있다. 자유롭게 아침 조깅을 나가거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비행기로 국경을 넘나드는 화려한 모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수감자들은 지정된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거나 정해진 복도를 열맷취 걸으며 식당으로 이동하는 등의 모빌리티를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푸코적인 의미에서 “규율화된 모빌리티”(17)인 것이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부풀려보자면 자유롭게 보이는 조깅 코스도 도시계획안에 따라 설계된 인공 호수변 산책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구성되고 있으며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해외 출장도 기업과 자본의 엄격한 통제와 계획 하에서 조직되고 있는 게 아닐까?

우선 푸코가 그리는 규율화된 모빌리티의 공간을 검토해보자. 『광기의 역사』나 『감시와 처벌』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간은 “일상적인 사회적 공간의 정상적(비-광인)이며 ‘비-악인인) 구성원들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간”(18)이다. 공간 구획을 통해서 수감자들의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것은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는 특정한

12) Chris Phillo, “One must eliminate the effects of ... diffuse circulation and their unstable and dangerous coagulation: Foucault and beyond the stopping of mobilities”, *Mobility and Foucault*, Katharina Manderscheid, Tim Schwamem & David Tyfield (eds.), New York; Routledge, 2015, pp.15-33.

자격 부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감옥과 같은 통제 공간은 임모빌리티를 통해 '비정상성'에 특정한 의도를 행사하기 쉽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푸코는 근대적 '규율 권력'—무엇보다 규율은 공간 안에 개인을 배치하는 것에서 출발함에 주목해야 한다(Foucault 1976, 150)—에 필수적인 '배치의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근대적 감옥과 기관들이 내포하고 있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 모두의 임모빌리티를 기술한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은 폐쇄된 공간에 대상 인구를 배치하는 포위 상태다. 나머지 '우리'와의 원활한 소통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규율 통제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특정 인구 집단을 임모빌리티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격리다. 시설 내 공간을 분할 또는 세분화하고 모든 수감자를 '독방'에 배치하거나 최소한 작은 그룹으로라도 분리함으로써 수감자들 사이의 (물리적, 도덕적) '감염'을 줄이고, 기관의 규칙적 일과 속에서 보다 쉬운 관리가 가능해진다.(19)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해당 공간을 그 바깥의 '정상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포위함과 동시에, 포위된 '비정상성' 사이의 접촉도 제한하기 위한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감옥 공간의 핵심 작동 원리이다. 지식-권력을 동원해 공간을 배치하는 규율 권력이 행사한 것은 결국 임모빌리티의 배치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필로가 주목하는 것은, 푸코가 폐쇄적으로 구획된 공간에서 작동하는 규율 권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안에서 허락되는 통제된 모빌리티에도 주목해, 순종적인 신체의 모빌리티를 통해 규율 권력의 작동 방식을 독해한다는 점이다. 순종적인 신체의 모빌리티란 예컨대 군대 안에서 신병들에게 일련의 제식동작을 훈련시키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인의 만들어진 걸음걸이는 왼발과 오른발 중 어느 발

을 먼저 앞으로 뺄지, 보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팔을 어디까지 치켜 들지, 이때 고개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등이 철저히 약속된 움직임이다. 훈련을 마친 신병들은 이 고도로 “숙련된 모빌리티”(20) 속에서 임모빌리티를 유지하게 된다. 군인들이 꼼짝 않고 열을 맞춰 서 있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태세가 갖춰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이다. 이는 임모빌리티 속의 모빌리티이며, 모빌리티 속의 임모빌리티라고 명명할 만하다.

푸코가 명시한 바대로 사물과 사람을 고정시키는 것은 규율 권력의 기본 기술이었지만, 사실 권력의 작동 방식은 사람이나 사물을 고정하여 질서를 부과하는 방식 즉 임모빌리티를 통해 구체화된다기보다는, 언제나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역동성 아래 놓인 것이었다.

민케와 르몬의 연구<sup>13)</sup>도 푸코의 감옥에서 시작한다. 이들은 감옥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가 모빌리티와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에 놓여 있었음을 지적한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규율 권력에 대한 푸코의 연구로부터 영향받은 이해 방식이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급진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구금을 통한 사회적 ‘무능’ 상태를 말한다. 이때 수감자는 분할된 공간 속에서 통제된 역할을 부여받는 동시에 완벽하게 반복적이면서도 끝이 정해진 시간을 부여받는다. 즉 감옥에서의 삶은 “완전히 멈추는 삶”(54)이다.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 아래에서도 통계학에 근거한 통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인구의 공간을 구획하고 통제한다. 특히 감옥은 모빌리티가 엄격히 제한된 닫힌 공간으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민케와 르몬은 감

13) Christophe Mincke & Anne Lemmone, “Prison and (im)mobility: What about Foucault?”, *Mobility and Foucault*, Katharina Manderscheid, Tim Schwamem & David Tyfield (eds.), New York; Routledge, 2015, pp.50-71.

옥을 임모빌리티가 강제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모빌리티가 강요되는 공간으로 해석해나간다.

특히나 실제로 감옥의 규율은 변화하고 있고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멈추게 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자를 특정한 공간에 구금하지 않고 ‘전자발찌’ 같은 GPS 추적장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자의 모빌리티에 개입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군가를 정해진 공간에 고정시켜놓는 행위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통치 권력이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도 이제는 하나의 고정성에서 다른 고정성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기준점 자체가 이동 중”(63)인 ‘흐름-형태’(flow-form)의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흐름-형태(flow-form)의 맥락에서 임모빌리티란 불가능하고 생각할 수조차 없다. 모빌리티는 본능적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임모빌리티는 그저 단순한 환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거부되고, 공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된다. 이러한 사회적 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사회적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더 이상 제한-형태(limit-form)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urn)’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맥락이다(Sheller & Ury 2006). 더욱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빌리티가 우리 모두의 필연적인 운명인 한 모빌리티는 그 자체로 가치 개념이 된다.(63)

저자들은 모든 것이 흐름으로 연결되는 현대 사회에서 한 장소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임모빌리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된 동시에 모빌리티는 하나의 가치 개념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심지어 범죄자를 구금하는 일조차도 모빌리티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시공간의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대한 푸코적인 설명이 시효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푸코의 설명은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 규율 권력의 장소에서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 권력의 장소로의 이동<sup>14)</sup>과 임모빌리티와 모빌리티의 역동적 관계를 생각해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모빌리티 전환’의 맥락에서는 푸코가 천착했던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문제도 재사유하게 된다. 푸코는 ‘정상성’을 위해 사회적 배제의 논리와 다양한 통치 규범이 작동했음을 밝혀주었고, 통계학을 위시한 근대적 통치 지식에 힘입어 안전 장치가 고도로 발전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때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비정상성’의 모빌리티를 고정시키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하지만 감옥에 대한 새로운 담론에서는 ‘정상화’라는 이데올로기가 거부된다. 구금은 범죄자의 모빌리티를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로 설명될 수 없다. 수감자의 임모빌리티는 여러 상황적 타당성이 썩혀져 작용되는 문제이며, 구금된 범죄자 역시 하나의 자율적 행위자라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감옥 안에서의 생활도 다른 사회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때 요구되는 것은 수감자의 임모빌리티가 아니다.

이는 투명성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완벽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으로 대체된다. 다시 말해서 대상의 임모빌리티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방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이다. (...) 이 효과는 파놉티콘의 효과와는 상당히 다르다. 감시의 단계로 구성된 파놉티콘 효과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감시를 통해 감시 자체를 목표로 삼음으로써 내면화의 효과를 가져온 반면, 추적가능성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분산시키는 것이며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다. 추적가능성은 항상 공간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황에 대한 잠재적

14)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지배력을 유지한다.(66-67)

감시해야 하는 대상에게 임모빌리티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모빌리티를 따라갈 수 있는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파놉티콘식 감옥이 대상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집중시킨 반면,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감시 체제에서는 오히려 분산을 허락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관리한다.

정상/비정상의 이분법 안에서 구획되는 통제 공간이 아닌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공간 안에서 모빌리티를 관리하는 기술의 출현은,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이때 요구되는 통치술은 절대 탈출할 수 없는 폐쇄적인 감옥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감시를 유지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모빌리티를 임모빌리티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를 중단없이 관리하는 것이며, 이렇게 관리되는 모빌리티는 빅데이터 기술과 만나 이미 일어난 모빌리티 데이터를 축적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빌리티를 예측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술로 이어진다. 이는 일찍이 푸코가 주목했던 특정 형태의 권력과 지식 사이의 결합 문제와 맞닿는다. “추적가능성을 통한 권력”(68)은 새로운 유형의 지식-권력으로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삶에 침투하면서 모빌리티 문제에 대한 재사유를 추동한다.

요컨대 두 편의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푸코가 주목했던 권력의 특징, 즉 지식-권력에 기반해 사람과 사물을 특정한 공간에 배치하는 기술이 모빌리티에 대한 사유를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모빌리티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중인 대상만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미동 하나 없는 군인의 정지 동작 속에는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제식 동작을 해낼 수 있는 모빌리티가

잠재되어 있고, 새로운 감시 모델 하의 피감시자는 자유롭게 일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의 모빌리티에는 추적장치가 붙어 있다.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 사이의 역동적 긴장관계는, 통치성이 임모빌리티를 강제하는 단순한 규율권력이 아님을 다시금 환기시켜준다.

정상/비정상, 모빌리티/임모빌리티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회적 모빌리티 형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예컨대 폐쇄적인 좁은 방 혹은 건물 안에서만 진행되는 이야기라든가 고정된 CCTV 화면의 재현만을 통해 전개되는 서사도 일반화되었는데, 모빌리티 연구는 이러한 텍스트 연구에서도 유효하다. 모든 사회적 구성은 모빌리티에 기초해 있으며, 때로는 모빌리티가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모빌리티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 2-2. 〈1F/B1〉, 관리인의 모빌리티

2009년 『문학동네』 여름호에 발표된 김종혁의 〈1F/B1 일층, 지하 일층〉은 극한의 상황에 처한 건물관리인의 (임)모빌리티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단편소설이다. 『모빌리티와 푸코』의 연구가 시사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연구 방법에 기대어 유의미하게 독해할 수 있는 닫힌 공간 속 모빌리티 서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윤정우는 고평시 네오타운에 위치한 홈세이프빌딩의 관리인이다.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소형 주상복합건물로 빼곡한 네오타운 전체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한다. 정전 수습을 위해 지하 관리실에 돌아온 윤정우는 다른 관리인으로부터 걸려온 ‘비상전화’를 통해 이 정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그리고 지하 관리실에 숨은 통로가 있

으며 그 통로를 통해 네오타운의 모든 건물관리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네오타운 건물관리인연합회원들은 각자의 지하 관리실에서부터 연결된 통로를 통해 한곳에서 집결하고 정전 속의 건물침입자들과 ‘암흑 속의 전투’를 벌인다. 사실 이 대규모 정전은 일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네오타운 전체를 겁먹게 만들려던 개발사의 의도된 계약이었는데, 건물주과 공권력이 총동원된 작전이었기에 네오타운은 무방비로 무법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불안감에 세입자들이 점차 떠나가면서 네오타운은 황량해졌지만, 윤정우는 몇 해째 홈세이프빌딩 관리실을 지킨다. 관리실 구석의 작은 비밀문을 열어둔 채 어두운 통로를 응시하면서.

이 소설은 고정된 모빌리티를 잘 그려낸다. 일단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평시의 작은 빌딩 공간을 벗어나지 않은 채, ‘지하에서 옥상까지’의 공간 안에서 진행된다. 이 소설 속에서 『지하에서 옥상까지』는 고평시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건물주이자 ‘건물관리인연합’을 창설한 인물 구현성이 네오타운 건물관리인들을 위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구현성은 자신의 권한이었던 네오타운 전력 통제권을 잠시 새로운 개발사 비혼건설에게 넘겨줌으로써 4시간 동안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킨 열쇠를 쥐었던 인물이다. 그는 사건 당일 빌딩의 맨 꼭대기 사무실에 앉아 암흑이 내려앉은 네오타운 정전사태를 감상한다. 지하에서 옥상까지의 폐쇄적인 수직 공간의 맨 아래에, 관리인 윤정우의 공간이 있다.

대규모 정전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홈세이프빌딩 지하의 관리실은 비밀상적이고 예외적인 공간처럼 묘사된다. 이곳은 흡사 교도소의 감방처럼 좁고, 폐쇄적이며, 안락하지 않다.

네오타운의 관리실 구조는 대개 비슷하다. 지하 일층 주차장 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원, 환기, 인터넷, 비상등, 방범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컨트롤박스가 좌우에 늘어서있고, 그 끝에 세 평 정도의 관리자 방이 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가구의 전부이고, 창문은 당연히 없었다. 잠을 자거나 밤에 라면을 끓여먹을 때 말고는 윤정우가 방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아본 사람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 있으면 한마디로 우주의 끝까지 내몰린 기분이다. 윤정우는 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고 싶었지만 기계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다.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면 사방이 우주의 귀퉁이처럼 캄캄하고, 문 너머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배수관의 물 흐르는 소리가 까마득하게 들려온다. 우주 전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방이라는 작은 세계의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된다. 네 개의 벽이 방을 둘러싸고 있지만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때, 그 벽은 무의미해진다.<sup>15)</sup>

관리자 방의 크기며 가구 배치, 계다가 바깥을 향한 창문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감옥 공간을 연상시킨다. 이 방의 주인인 윤정우 자신도 관리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잠을 자거나 라면을 먹을 때 등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통 수면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점유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윤정우는 “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고 싶어한다. 관리실 방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윤정우의 관리실이 감옥의 독방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관리실 공간이 특별해지는 것은 인용문 첫머리에 나오는 “수십 개의 컨트롤박스” 때문이다. 감옥의 독방 안 수감자는 독방 공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다. 자신이 간혀 있는 독방의 문을 열고 싶을 때 열 수 없는 것은

15) 김중혁, <1F/B1>, 『1F/B1 일층, 지하 일층』, 문학동네, 2012, 178-179쪽.

당연한 사실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윤정우의 ‘독방’에서는 그 자신의 방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 전원, 환기, 인터넷, 비상 등, 방법 등 건물 전체와 연결된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가 바로 지하의 이 좁은 관리실 공간에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에서 윤정우는 홈세이프빌딩에 갇힌 인물이라기보다는 빌딩 공간 전체를 장악한 인물이다. 콘트롤박스를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전이라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다. 윤정우가 가진 직업적 자부심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대개 건물관리인의 노동은 건물 안을 순회하는 반복적인 모빌리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재현되기 일쑤다. 실제로 이 소설의 앞부분에서도 구현성이 쓴 책의 한 대목의 형식을 띠고, 자신의 노동을 감시하듯 지켜보는 입주자 앞에서 형광등을 같이 끼워야 하는 건물관리 노동의 고충이 제시된다. 뜨거운 형광등 앞에 선 건물관리인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서 빨리 형광등을 끼우고 이곳을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같이 끼운다. 그런데 윤정우는 이같은 통념을 위반하는 인물로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반복적인 노동을 의미화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고집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다.

윤정우는 평상시에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 (...) 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숫자를 썼다. 지하의 관리실 칠판에는 언제나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윤정우가 오르내린 계단의 수를 적어놓은 것이었다. 저녁이 되면 윤정우는 칠판에 적힌 숫자들을 모두 합해서 그 날 오르내린 계단 수를 확인했다.<sup>16)</sup>

16) 김중혁, <1F/B1>, 『1F/B1 일층, 지하 일층』, 문학동네, 2012, 176쪽.

윤정우는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의 숫자를 세고,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수치화하고 새롭게 의미화한다. 관리실 칠판에 적힌 숫자들은 콘트롤박스를 가득 채운 스위치들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테크놀로지다. 구현성은 “건물관리자는 자신의 몸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건물의 리듬에 자신을 맡겨야지.”<sup>17)</sup>라고 충고했지만 윤정우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기록을 통해 자신이 건물 안에 붙박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 중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결코 건물 바깥으로 확장되지 않았던 윤정우의 모빌리티는 뜻밖의 사건을 맞아 뜻밖의 방식으로 확장된다. 일단 콘트롤박스에 의지한 정상적 건물관리를 무력화시키는 대규모 정전사태 앞에서 윤정우는 무력해진다. 깜깜한 복도를 지나는 동안 입주자 그 누구도 윤정우에게 손전등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그는 암흑 속에서 계단을 내려오게 되고, 계단의 끝에 위치한 지하 관리실은 관리의 기능을 상실한 진정한 의미의 ‘독방’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비상전화’가 울리고 윤정우의 책상 뒤에 비밀 통로로 향하는 ‘문’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네오타운의 모든 건물 지하 관리실은 이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장소의 확장은 뜻밖의 방식으로 일어난다. 인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건물 ‘내부의 내부’로 나가(는 동시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역설적 중첩 구조는 〈1F/B1〉이라는 소설 제목의 엠블럼에 시각적으로 이미 기입된 것이기도 하다.

지하 비밀 통로는 윤정우가 온몸으로 거부했던 관리실 방의 확장판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감금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소설의 공간 구성은 임 모빌리티 속에서 조직되는 모빌리티를 잘 보여준다. 비밀관리실에 모인

17) 김중혁, 〈1F/B1〉, 『1F/B1 일층, 지하 일층』, 문학동네, 2012, 177쪽.

건물관리인연합회원들은 대형 모니터에 3차원 입체지도와 CCTV 등을 띄워 사태를 주시한다. 이들은 꼼짝없는 임모빌리티 상태지만 건물관리의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공간을 장악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이 CCTV 화면은 조작된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먼저 지식-권력을 행사한 것은 건물주 구현성으로부터 시작해 새로운 개발자 비혼건설로 이어지는 자본가였으니 말이다.

이 서사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인다. 전력센터와 경찰의 암묵적인 조력을 받아 대규모 정전을 일으키며 무질서를 만들어낸 특공 직원을 파견했던 비혼건설에서도, 윤정우를 앞세운 건물관리인연합의 예기치 않은 활약으로 특공 직원들이 체포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겨 모든 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 입주자들이 앞다투어 떠나간 네오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스러져가는 문화재처럼 남아가고 있으며, 건물관리인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동화되어있던 건물 관리 시스템이 정전 사태 이후 전면 수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건물관리인연합은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윤정우를 중심으로 SM(슬래시 매니저)이라는 이름의 지하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이 소설은 모빌리티가 정지된, 혹은 제한된 인물들이 펼치는 투쟁의 서사로 읽을 수 있다. 창문도 없는 지하 관리실로 상징되는 억압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적인 모빌리티를 획득하려는 서사로 말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독해할수록 점점 드러나는 것은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를 단순한 해방과 억압으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윤정우의 모빌리티는 반복(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과 고정(지하 관리실을 지키는 일) 속에서 발생하며, 가장 폐쇄적이었던 관리실 방으로부터 비밀 통로로 가는 가능성의 공간이, 역설적이게도 한층 더 폐쇄적인 방식으로 열림으로써 도시를 재개발하려는 통치 기술을 전복시켰다.

SM을 조직한 후 윤정우가 건물관리자회보에 쓴 글이 소설 말미에 나오는데, 이 글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저는 늘 계단을 이용합니다. 오층이든 십층이든 언제나 계단으로 올라 갑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계단을 밟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저는 늘 층을 알리는 작은 표지판을 봅니다. 표지판은 층과 층 사이에 있습니다. 일층과 이층 사이, 이층과 삼층, 삼층과 사층 사이…… 저는 그 표지판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처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슬래시 기호(/)를 볼 때마다 우리의 처지가 딱 저렇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층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도 저곳도 아닌, 그저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sup>18)</sup>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끼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건물관리인은 각자의 층에서 행복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비된다. 건물관리인은 제한된 공간에 붙박인 임모빌리티의 주체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빌리티의 주체여서가 아니다. 오히려 전자는 “계단”을 이용해 어느 층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주체이고 후자는 “각자의 층”에 머무르고 있는 자다. 더 나아가 1층부터 차례로 계량화되어 나뉜 건물의 각 층이 우리에게 부과된 규율화된 공간 배치라면, 건물관리인은 그 사이의 “슬래시”를 응시하는 자다. 이 “슬래쉬”는 도래할 모빌리티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자, 소설의 맨 마지막에서 윤정우가 응시하는 검은 비밀통로 구멍 자체이며, 멈추지 않는 운동성을 상징하는 모빌리티의 기호다.

18) 김중혁, 〈1F/B1〉, 『1F/B1 일층, 지하 일층』, 문학동네, 2012, 202-203쪽.

### 3. 장치로서의 모빌리티와 재현

#### 3-1. 장치로서의 모빌리티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전제 중 하나는 사람들의 모빌리티 관행이 그들의 공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및 개인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128)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모빌리티의 문제, 나아가 임모빌리티의 문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다. 김중혁의 〈1F/B1〉 서사를 추동하는 것도 결국 오늘날 한국사회 특유의 ‘(재)개발’ 문제였다. 자본과 통치의 논리에 따라 구성되는 개발계획은 특정 인구의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를 추동하고 결정한다.

어쩌면 ‘광주대단지 사건’은 여전히 변주되며 진행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서울의 판자촌 인구를 지금의 성남인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키며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이른다. 정부에서는 광주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이라 약속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지만 결국 이뤄진 것은 토지 투기꾼과 개발 업체들의 차익 실현이었고 대다수의 이주 빈민은 도시 기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광주에 방치된다. 이전에 삶을 일궈던 장소인 판자촌은 이미 파괴되어 돌아갈 곳이 없고, 새로운 이주지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 정착할 수도 없다. 정주가 불가능한 동시에 이동도 불가능한 이른바 ‘(재)개발지 주체’ 형상은, 광주대단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박태순의 산문<sup>19)</sup>과 조세희의 연작 소설<sup>20)</sup>, 윤홍길의 소설<sup>21)</sup> 등 다양한 재현으로 이어졌다.

19) 박태순,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 1971년 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0)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81.

21)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창작과 비평』 1977 여름호, 1977.

권력 행사의 정도는 다르지만 개발을 위한 점거와 이주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지구로 구획되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새로운 택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거주자들은 반드시 이동해야만 한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동을 위한 수단(주로는 자본)이 없어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곳을 자본 증식을 위한 장소로 삼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통치와 자본의 논리가 맞물린 재개발 장소에서 사람들의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는 이분법을 가로 지르며 실재 없이 충돌한다.

『모빌리티와 푸코』의 만더샤이트<sup>22)</sup>는 모빌리티를 ‘장치(dispositif)’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한다.(129) 이는 푸코의 용어로 푸코는 ‘장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이 용어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담론, 제도, 건축상의 정비, 법규에 관한 결정, 법, 행정상의 조치, 과학적 언표, 철학적·도덕적·박애적 명제를 포함하는 확연히 이질적인 집합이다. 간단히 말해서 말해진 것이든 말해지지 않은 것이든, 이것이 장치의 요소들이다. 장치 자체는 이런 요소들 사이에 성립되는 네트워크다(Foucault 1980,194f).(129)

모빌리티를 푸코적인 의미의 장치로 본다는 것은 모빌리티를 현대의 생산적 장치로서 이해하겠다는 뜻이다. 장치로서의 모빌리티는 사회적 의미와 지식, 공간 구조, 교통 및 통신의 경관과 기술, 사회적 관계, 복잡하게 얽힌 경제 및 지리적 네트워크 구성에 동시에 기여하며, 체계 모니적, 반 체계모니적 담론의 구성에도 참여한다. 이로써 “담론은 이동

22) Katharina Manderschied, “The movement problem, the car and future mobility regimes: Automobility as dispositif and mode of regulation”, *Mobilities*, Vol.9 No.4, 2014, pp.604-626.

과 정지를 정의하는 지식의 대상으로서 모빌리티를 구성하고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러한 사회적 사실에 귀속"시킴으로써 "특정한 모빌리티 주체성을 형성"(130)한다.

이 논문에서 만더사이트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사실상 '자연화'되고 있는 자동차모빌리티 문제다. 대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자동차모빌리티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고, 도시의 공간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교통 수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중시하며 구성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와 자동차모빌리티에 대한 재현과 담론은 정책이나 교통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보, 자유, 자율성, 안전성과 같은 애매모호한 용어와 관련되면서, 자동차모빌리티는 영화와 문학 및 대중가요 가사에까지 널리 퍼져있으며, 이는 자동차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적극 활용되면서 강화된다. 반면 대중교통은 느림, 가난, 즉흥성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며 신자유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매우 부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띠게 된다.(134)

인용문은 장치로서의 모빌리티, 특히 자동차모빌리티가 낳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자동차모빌리티의 자연화는 진보나 자유와 같은 가치 개념과 맞붙으면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모빌리티를 장치로 개념화한다는 것은, 모빌리티를 주체를 구성하는 필수 단위로 보는 동시에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네트워크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누가 움직이고 있고 누가 움직이지 않는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자와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지, 혹은 입모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자는 누구인지 등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입)

모빌리티의 주체와 함께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배치를 발견하게 된다.

### 3-2. 주저하는 (임)모빌리티

장치로서의 모빌리티는 일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생산되는 주체화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예컨대 자동차모빌리티에 집중하여 장치로서의 모빌리티를 해석하는 만더사이트의 연구는 박정희 정권기 국토개발계획의 재현을 분석할 때에도 직접적인 참조점이 된다. 성공적인 국토개발 성과의 재현은 전술한 광주대단지 사건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정반대의 사회적 가치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1970년대에는 도로망이 연결하는 산업화의 거점에 따라 국토가 재편되었고 자동차모빌리티를 통해 구성되는 국토 경관은 낱알이 갱신됐다.<sup>23)</sup> 통치권력이 주도해낸 새로운 국토 경관은 <팔도강산> 시리즈에 드라마틱하게 재현되고 있다.

<팔도강산>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기획하고 공보부에서 제작한 사실상 관홍보영화에 다름아니었다. 1967년에 처음 개봉한 뒤 공전의 대성황을 기록하면서 <속 팔도강산—세계를 간다>(1968), <내일의 팔도강산>(1971), <아름다운 팔도강산>(1971), <우리의 팔도강산>(1972) 등 속편이 연달아 제작되며 인기몰이를 했다. 주인공 노부부 내외가 전국 각지에 살고있는 여섯 남매의 집을 방문하는 로드무비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영화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각 지방을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지역화하며 재현한다.<sup>24)</sup> 그러나 무엇보다 도착지로

23) 전완근, 『1970년대 국토경관의 사회적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4) 김한상,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 한국영상자료원, 2007.

서의 로컬 재현에 앞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부부의 여정 그 자체다. 전국 각지로 여행하는 차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국토 경관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에서는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 다목적 댐, 대규모 녹지와 농지 등에 대한 노부부의 감탄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경관의 감상이 가능해진 것은 고속도로 인프라이가 전제된 자동차모빌리티 때문이다. 〈팔도강산〉에서 국가는 자동차모빌리티 장치를 통해 구성되는 통치성의 효과로서 감각된다.

하지만 장치로서의 모빌리티를 읽어내는 텍스트 연구방법은 〈팔도강산〉류의 로드무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극적인 모빌리티가 발생하는 서사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의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도 여행기 연구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구들이 서사의 모빌리티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속에 내장된 담론과 제도를 독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다. 본고에서 『모빌리티와 푸코』를 중심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빌리티가 긴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모빌리티와의 긴장이 발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로 김종혁이 그려낸 폐쇄적인 공간은 주인공에게 임모빌리티를 부과하는 공간인 동시에, 주인공이 모빌리티의 주체로 주체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긴장감이야말로 〈1F/B1〉 서사의 미학적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혜진의 최근작 〈목화맨션〉도 장치로서의 모빌리티와 통치성을 사유하게 해주는 흥미로운 재현을 선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텍스트도 여행기와는 정반대의 서사 진행을 보여준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재개발을 앞둔 목화맨션의 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를 그린 단편인데, 문제는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주인과 세입자의 미묘한 신경전에 있다. 대개 ‘재개발 서사’라고 하면 떠밀

려서 이동하는 세입자들과 개발을 밀어붙이는 자본가 사이의 격정적인 모빌리티 대립이 환기되지만, 〈목화맨션〉이 짚어내는 부분은 ‘주저하는 모빌리티’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철거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원하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목화맨션〉에서도 이 점이 긴장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재개발이 거듭 이뤄지면서 주인과 세입자는 6년간 계약을 이어나간다.

금방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집이 지금껏 이렇게 견재하다는 사실, 재개발을 기다리며 허비한 시간이 오 년에 달한다는 사실. 자꾸만 되살아나고 번듯해지는 이 집과의 싸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사실. 다시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sup>25)</sup>

집주인 만옥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조만간 집이 허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목화맨션을 구입했지만 번번이 재개발이 무산되어 집은 자꾸만 “되살아나고”, 세입자 순미의 삶이 깃들게 되면서 자꾸만 “번듯해진다”. 이 집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만옥에게 하나의 “싸움”이며 싸움의 “실패”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모빌리티의 실패이기도 하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돌려줄 전세금이 당장 없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나갔을 때 바로 구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이 없어서, 양쪽 모두 목화맨션에서의 그 어떤 이동도 망설이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 ‘주저하는 모빌리티’는 장치로서의 모빌리티를 잘 보여준다. 이 모빌리티를 통해 재개발을 둘러싼 제도와 담론, 법과 행정

25) 김혜진, 〈목화맨션〉, 『2021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1, 170쪽.

절차, 자본과 시장, 인간관계 사이의 복합적인 네트워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제의식은 김혜진의 등단작 〈치킨 런〉에서부터 감지되었던 바다. 〈치킨 런〉의 주인공은 오토바이 배달부다. 주인공은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자살을 시도하는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이 꼬이면서 그 남자의 집에 드나들며 결국 그의 자살을 도와주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다. 자살하려는 102호 남자는 이 가난한 동네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절망하며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주인공을 포함하여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를 떠나고 싶어한다. 예외적으로 주인공의 여자친구 선미는 사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며 탈출에 성공한다.

선미가 떠난 동네를 나는 종일 헤매고 다녔다. 치킨 봉지나 피자 상자를 신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매일 서너 번씩 이사 가는 상상을 하는 것뿐이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정말이지 여기만 아니라면 나도 선미처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환하고 반듯한 산책로와 널찍한 도로 가에 일렬로 늘어선 건물들. 그런 동네가 아니라도 기형적인 건물과 위태로운 옥탑방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 나는 쉬지 않고 동네를 돌고 또 도는 셈이었다.<sup>26)</sup>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이사가는 상상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 동네에 붙박여있다. ‘이사 가는 상상’은 때때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며 찰나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예외적 모빌리티로 구체화된다. 주인공을 지배하는 모빌리티는 임

26) 김혜진, 〈치킨 런〉, 『어비』, 민음사, 2016, 99쪽.

모빌리티 속의 모빌리티다. 다시 말해 좁은 동네를 돌며 배달을 하는 주인공의 모빌리티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운동이지만 결국에는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임모빌리티이기도 하다. 그의 모빌리티는 “떠나기 위해” 계속해서 “동네를 돌고 또 도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 한 자리를 맴도는 〈치킨 런〉의 모빌리티는 ‘주저하는 모빌리티’이며, 주체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그를 둘러싼 제도의 배치를 드러내는 장치로서의 모빌리티이다.

게다가 〈줄넘기〉에서는 걱정하고 제자리 뛰기만을 하는 모빌리티가 등장한다. 실연하고 망연자실 상태가 된 주인공이 우연히 공원에서 줄넘기하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노인의 권유로 함께 줄넘기를 하게 되는 내용의 단편소설인데, 쉽 없이 운동하고 있지만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운동인 줄넘기를 통해 주인공은 새로운 삶의 자세에 대한 암시를 받게 된다. “언제나 항상 같은 자세와 똑같은 동작으로 유지되는 운동. 아무것도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는 건 사람을 맥빠지게 했다. 좁은 바닥을 스치다 발목을 때리고 둥글게 솟아오를 때쯤 뒤꿈치에서 정지했다. 줄이 완벽하게 회전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은 또 어김없이 엉켰다.”<sup>27)</sup> 주체에게 세계는 계속해서 뛰어넘어보지만 결국에는 뛰어넘지 못하는 무언가로 감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주체를 통제하고 있는 장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관념적인 층위에서의 모빌리티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이 교차하는 현실적인 층위에서 그 권리는 누구나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또한 물리적 모빌리티와 사회적 모빌리티의 불일치는 제자리를 맴돌며 주저하는 모빌리티로 재현된다. 바우만의 지적대로 “더 빨리 움직이고

27) 김혜진, 〈줄넘기〉, 『어버』, 민음사, 2016, 183쪽.

행동하는 사람들, 운동의 순간성에 가장 근접한 이들이 이제 세상의 지배자들이”고 “그들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하거나 자유자재로 떠나지 못하는 범주의 사람들이 피지배자들”<sup>28)</sup> 인 것은 일견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자재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임)모빌리티야말로 사회적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통치와 권력, 지식과 제도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소설의 상상력은 장치를 비틀면서 새로운 배치를 암시한다. 김중혁이 <1F/B1>의 주인공 윤정우를 통해 발견한 슬래쉬의 존재론처럼, 김혜진도 <줄넘기>에서 노인의 입을 빌려 새로운 줄넘기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세지 않고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줄을 넘어 보”<sup>29)</sup>는 것이다. 노인은 줄을 넘으면서 하나, 하나 세다보면 결국에 줄넘기 500개, 1000개, 1500개를 뛸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 둘, 셋 하고 세다보면 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실패가 확정되지만, 하나, 하나, 하나 세다보면 실패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김혜진의 소설은 장치로부터 빗겨서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한다. 임모빌리티와 모빌리티의 역동성이 빗어낼 수 있는 정치학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에서 태어난다.

#### 4.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는 『모빌리티와 푸코』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보았다. 푸코는 이성/미이성, 정상/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술을 통해 작

28)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강, 2009, 193쪽.

29) 김혜진, <줄넘기>, 『어비』, 민음사, 2016, 187쪽.

동한 규율 권력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감옥으로 대표되는 폐쇄적 공간에 대한 연구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모빌리티와 푸코』의 필자들은 푸코의 작업에 이미 모빌리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들어있었음에 주목하며 이를 모빌리티 연구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킨다. 푸코가 말한 통치성이자 장치로서의 모빌리티에 주목했을 때,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 사이의 긴장감과 역동성이 강조되어 단순한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모빌리티 연구의 가능성이 열린다. 본고는 이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해 김중혁의 〈1F/B1〉과 김혜진의 단편소설을 분석했다. 〈1F/B1〉은 건물 안에 흡사 갇혀있는 듯 보이는 건물관리인의 서사를 담고 있지만, 소설 속 관리인의 모빌리티는 기성의 통념을 관통하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로 나아간다. 〈목화맨션〉, 〈치킨 런〉, 〈줄넘기〉에서는 동네를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인물들을 통해 주체의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폭로한다. 『모빌리티와 푸코』의 연구를 참조했을 때 우리는 텍스트 속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서사를 재독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속도와 모빌리티는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속도, 동일한 자원, 동일한 선택지를 갖고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127)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를 둘러싼 불평등의 문제는 〈1F/B1〉이나 〈목화맨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동하기를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거부하는 서사에서 오히려 섬세하게 포착된다. 『모빌리티와 푸코』가 제기하는 (임)모빌리티와 통치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 특유의 (재)개발 현상 및 그것의 서사적 재현에서 재확인되는 셈이다. 지식-권력과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사유를 토대로 한 텍스트의 (임)모빌리티 재현 분석은 새로운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밝혀줌과 동시에 기존의 텍스트 연구를 새로이 갱신해주는 접근 방법이 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중혁, 『1F/B1 일층, 지하 일층』, 문학동네, 2012.  
김혜진, 『어비』, 민음사, 2016.  
\_\_\_\_\_, 〈목화맨션〉, 『2021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1.  
Manderscheid, Katharina, Tim Schwamem & David Tyfield (eds.), *Mobility and Foucault*,  
New York: Routledge, 2015.

### 2. 논문과 단행본

- 김나현, 「국토라는 로컬리티: 1970~80년대 박태순의 국토기행문」, 『사이공간SAI』 제30호,  
국제한국문학문화연구학회, 2021, 281-312쪽.  
김한상, 『조국근대화 유람하기』, 한국영상자료원, 2007.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양명심, 「일본명 조선인 작가의 디아스포라 서사와 모빌리티 재현」, 『일본어문학』  
제79호, 일본어문학회, 2018, 251-267쪽.  
이승윤, 「소설 『토지』에 나타난 모빌리티 연구: 공간의 재인식과 관계의 재구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7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359-382쪽.  
이진형,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의 모색」, 『대중서사연  
구』 제24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8, 337-402쪽.  
전완근, 「1970년대 국토경관의 사회적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정은혜, 「모빌리티 렌즈로 바라본 최부의 『표해록』」, 『인문학연구』 제42호, 경희대  
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449-481쪽.  
존 어리, 『모빌리티』, 강현수·이희상 옮김, 아카넷, 2014.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강, 2009.  
하신애, 「제국의 범역으로서의 대동아와 식민지 조선인의 모빌리티」, 『한국현대문  
학의 연구』 제57호, 한국현대문학회, 2019, 203-233쪽.

## Abstract

### (Im)Mobility as Dispositif and its Representations

– Mobility-Based Textual Research Method Centered on *Mobility and Foucault*

Kim, Na-Hyun(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obility-based textual research methods raised in *Mobility and Foucault* and apply them to textual analysis. This book contains seven articles applying Foucault's terms to mobility studies, giving intellectual stimulation to both studies.

Since Foucault examined discipline power operated through the technology of distinguishing between rational/irrational and normal/abnormal, his works seem to a study of closed spaces like prisons. However, the authors of this book note that Foucault's works already had sufficient insight on mobility, and them actively incorporated it into mobility study. When we concentrate Foucault's works on mobility as a governmentality and a dispositif, the tension and dynamics between mobility and immobility are emphasized. And then it is possible to cross the simple dichotomy in mobility studies. This paper analyzes Kim Joong-hyuk's short story *IF/BI* by applying this method. This story describes a building manager who seems to be fixed in a building, but the mobility of him in the story goes through stereotypes and creates new spaces. Kim Hye-jin's short stories also represent mobility that cannot move and hesitates. These stories are important in that they show the mobility as a dispositif that constitutes the subject. When referring to the achievements of *Mobility and Foucault*, we read this narrative again by paying attention to the dynamics of mobility and immobility in the text.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expands mobility-based textual research anew. While text analysis applying mobility study was usually focused on clearly mobile narratives such as travel statements and diaspora narratives, *Mobility and Foucault* drives new textual research by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mobility, mobility and immobility dynamics. Therefore,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e new meaning of the text revealed when paying attention

228 대중서사연구 제27권 3호

to the representation of mobility in the narrative that no one seems to be mobile, and seeking to expand the mobility-based textual research method.

(Keywords: mobility, immobility,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dispositif, Kim Joong-hyuk, *1F/B1*, Kim Hye-jin, representation of mobility)

논문투고일 : 2021년 9월 1일

심사완료일 : 2021년 10월 1일

수정완료일 : 2021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0월 13일